

COME & SEE

2026 BETHEL THEME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시편 66장 5절)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1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1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살롬채플
9:00A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다 감사드리세(찬20/새66장)
-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송기평 장로 2부/송용훈 집사 3부/송석원 장로 4부/김지수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은혜 아니면(조성은 작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유아 세례식(3부) Infant Baptism Ellie Hael Oh 오하엘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요한복음(John) 4:1-30 Altogether 다같이
4부/베드로전서(1 Pet.) 1:3-9
- 말씀 Message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궁예(6) 수가성 여인의 해방일지

4부 Rev. Jacob Park 박경철 목사
정금보다 귀한 믿음

-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우물가의 여인처럼, 목마른 내 영혼(찬409/새309장)
- 헌금 특송(3부) Offering Song..... Dong Kyu Oh(Baritone) 오동규(바리톤)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오직 예수 뿐이네, Come and See 50
- *축도 Benediction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지체의식

Sense of Belonging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베델 동역자 목사님들과 일주일에 두 번, 새벽기도 후 운동을 합니다. 요즘 테니스에 몰이 올라 재미있게 운동을 하다가 오른쪽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다행히 발목은 부러지지 않았지만, 깁스 부츠를 하고 목발을 잡고 다니면서, 얼마나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본의 아니게 운전도 할 수 없어서, 아내가 운전해 줘야 움직입니다. 교회 출근 후에도 목사님들이 저를 휠체어 태워 운반하고, 제가 들어야 할 성경책도 대신 들어줍니다. 저의 다친 발목 하나가 온 집안 식구와 온 교회에 폐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달 가량 계속 된다는 것이 죄송할 뿐입니다. 제 몸의 사이즈에 오른쪽 발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분의 1? 저의 발목이 온 교회에 비하면 천만분의 1이 될까요? 그러나 하나가 아픈데 100이, 천만의 지체가 다 같이 그 아픔을 공유하게 됩니다. 차 문을 열고 닫는 것부터, 교회에서 거의 타지 않는 엘리베이터 타는 것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얼마 전 신학강좌 때, 다리가 불편한 노목사님이 다른 강사들과 같이 제 사무실에서 본당으로 같이 다니지 않고, 주일 1, 2, 3부 예배 내내 본당에 앉아 계셨는데, 왜 그러셨는지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3부 내내 서서 설교 하는 것도 목청만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다리가 버티는 힘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다리가 버티려면 발목이 튼튼해야 하는 것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수요말씀여행 때는 앉아서 '구원론' 성경공부를 인도했습니다. 의자 하나 놓고 앉아서 한 것이 아니라, 스튜디오 수준으로 수요일예배팀이 테이블을 셋업하고 근사하게 꾸며서 편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성도들은 눈높이 맞아서 더 잘 들었고, 정말로 BTS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다친 것은 저의 발목 하나인데, 온 교회가 기능이 저하된 저의 발목 때문에 애쓰는 모습을 보며 사도바울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 12:26-2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불쌍하다고 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측은지심으로만 작동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지체 의식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저의 다친 발목이 회복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우리 지체 중 그 어느 것도 작거나 덜 중요한 것이 없다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기회였습니다.

I play tennis twice a week after early morning prayer with my fellow pastors at Bethel. I was really getting into the game and having a great time, but then I sprained my right ankle. Fortunately, the bone isn't broken, but having to wear a cast boot and getting around on crutches makes me realize just how inconvenient life can be. I am unable to drive, so my wife drives me wherever I need to go. Whenever I arrive at the church, the other pastors push me around in a wheelchair and even carry my Bible for me. This injured ankle of mine has ended up causing a burden to my entire family and the whole church, and the thought that this will continue for about a month just makes me feel sorry. What percentage of my total body weight does my right ankle actually make up? One-hundredth, or 1%? Compared to the entire church, does my ankle even make up one ten-millionth? Yet, when one part is in pain, the other 99% share that pain together. From opening and closing a car door to riding the church's rarely used elevator, everything has taken on a new meaning. Not long ago, during a theology lecture series, an elderly pastor with a leg disability remained seated in the main sanctuary throughout the first, second, and third Sunday services rather than moving around between my office and the sanctuary with the other instructors. Now, I finally understand why.

I also realized that preaching while standing through all three services isn't just about straining your voice—it requires the strength of your legs to hold you up, and your ankles must be strong. So, during our recent Wednesday Word Journey, I led the Soteriology Bible study while sitting down. Rather than just pulling up a single chair, the Wednesday worship team set up a table in a studio-like arrangement and made it look nice so I could share the Word comfortably. Many congregation members said it was easier to listen because we were at eye level, and that it truly felt like studying at a BTS (Bethel) Theological Seminary.

It was just my ankle that was injured, but seeing the whole church put in extra effort because of my weakened ankle reminded me of what the Apostle Paul said when describing the church in 1 Corinthians 12:26-27: "If one member suffers, all suffer together; if one member is honored, all rejoice together with it. Now you are the body of Christ, and each one of you is a part of it." This is a statement that is possible only when we are in Christ. The world does not help everyone simply out of pity; it does not operate merely on sympathy. Thus, it is impossible without the "consciousness of belonging"—the realization that we are all members of the body of Christ. The recovery of my injured ankle is for Christ, and it has been an opportunity for me to gain a new realization that none of our members is small or less important.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수가성 여인의 해방일지

(요한복음 4:1-30)

1. 사마리아 여인은 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한낮에 혼자 우물로 나왔을까요? 그녀의 삶과 마음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2. 예수님은 왜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며, 당시 사람들이 외면하던 이 여인을 먼저 찾아오십니까. 어떤 장애물들을 헤치며 찾아오셨을까요?
3. 수가성 여인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가치는 무엇이었나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거짓된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 또는 행하실 것 같은 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속성 자체에 있는 거룩함과 아름다움, 탁월함 때문에 그분을 사랑한다." 인용은 어떤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까?
4. 예수님이 갑자기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 질문에는 어떤 사랑의 목적이 담겨 있었을까요? 나에게도 꺼내고 싶지 않은 '남편'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5. 나는 요즘 무엇이 있어야 만족하고, 무엇을 잃으면 인생이 무너진다고 느끼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물을 길고있는 나의 '우물'은 무엇입니까?
6.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달려간 것처럼, 예수님의 생수를 맞본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할까요?

적용하기



선교 후기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올해는 선교를 한 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에 미션의 날 여러 부스를 둘러보다가 코스타리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출발 전 10주 동안 목사님을 포함한 13명의 팀원들이 매주 토요일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며 한 마음으로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선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큰 감동의 순간은 아이들과 함께 눈을 맞추고 찬양하고 율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우 덥고 습했지만, '크리스토 메 아마(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를 있는 힘껏 외치며 아이들이 웃으며 따라 하는 모

습을 보니 제 마음도 기뻐했습니다. 아이들이 앞으로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기를 기도하며, 복음이 아이들에게 소망이 될 것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 선교팀도 만나면 좋겠다는 선교사님의 격려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제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첫째, 다양한 사역 속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팀원들과 한 몸처럼 하나가 되었고, 둘째, 30년간 그 땅을 섬기신 선교사님 부부, 그리고 운전과 통역으로 도와주신 현지 목사님과 딸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하나로 동역할 수 있었으며, 셋째, 300여 명의 현지 아이들과 전도하며 만난 주민들, 현지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린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들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부탁했던 분들과 하나 됩니다. 날씨를 포함한 모든 기도 제목이 빠짐없이 응답받은 것을 보며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서 나와 하나님과의 하나 됨에 대한 말씀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11장 19-20절)

코스타리카에서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도 계속 만나며 새 영을 늘 부어 주셔서 마음이 부드러운 자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김성중 집사

사역 소개 오케스트라

다시 찾은 예배의 기쁨



코로나로 교회가 문을 닫은 후 몇 년의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이 당연해지면서 하나님과도 조금씩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도,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도 어느 순간 잊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셀(글로리아 3)에서 1부 예배 서비스를 맡게 되어 5년 만에 다시 베델교회를

찾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교회에 가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어색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마주한 베델교회는 놀랍도록 하나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떠나 있었지만, 마치 다시 돌아와야 할 곳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특히 예배를 준비하며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베델 콰이어와 오케스트라를 바라보는데 마음이 몽클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 성가대와 오케스트라를 함께 섬겼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셨습니다.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참 감사하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시는 오케스트라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

던 저도 어느새 그 자리에 서서 함께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격려와 믿음으로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서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베델 오케스트라의 헌신과 찬양이 제 마음을 움직인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시 움직이신 걸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매번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마음이 벅차고 행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새삼 깨닫습니다. 잃어버렸던 예배의 기쁨을 다시 찾게 하시고, 멀어졌던 제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베델 오케스트라와 베델 콰이어와 함께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문형 집사

Come&See 50 특집 11

베델의 여정

베델교회 50년, 베델과 함께 한 40년

베델교회 창립 초기부터 함께하며 1984년부터 정식 교인으로 출석한 초창기 교인으로서, 베델교회 5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소중한 기억과 교회 역사에 도움이 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40대부터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육부장직을 맡고 한글학교를 처음 세워 아이들에게 한글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인 1.5-2세 젊은 교인층의 확장을 위해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설교할 수 있는 목사님을 요청하여 청소년부 예배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미 평화봉사단의 한국어 교사로 훈련받은 전문 지식과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한글학교 교장을 맡으며 당시 1,500명이 출석하는 교회에 비해 학생 수가 30-40명에 불과해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이에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한글 프로그램을 예배 중 한 시간에서 예배 후 3시간의 별도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교사진을 확충하며 유급 교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교사 훈련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몇 달 만에 학생 수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4년 후 교장직을 내려놓았지만, 지금의 왕성한 한글학교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어느 날 손인식 목사님께서 어바인 시로부터 우리 교회에서 Harvard 길로 나갈 때 좌회전을 못 한다는 명령을 받았다고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얼바인 교육위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다음 날 열린 교육위원회 합동 회의에서 교회 사정을 설명했고, 시 매니저의 도움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평소 시청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 조언에 따라 담임목사님과 당시 얼바인 시장과의 점심 자리를 마련하고, 교회 법률 상담 변호사님과 함께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여전도회 주최로 얼바인 경찰관들에게 한식 점심을 제공하는 행사로 이어져 교회 뿐만 아니라 한인들의 존재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원거리 주차장 셔틀을 위한 스쿨버스 회사를 연결해 교회를 도왔고, 2004년부터는 얼바인 시

의원으로 활동하며 한인들을 위해 베델교회 통역과 함께 시가 제공하는 유익한 프로그램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주택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컸으며, 이를 통해 시청을 교회로 끌어들이 귀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껏 제게 주어진 자리에서 교회의 발전을 위해 참여해 왔듯, 지금 주 상원의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많은 일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최석호 집사



사역 간증

새가족(바나바)

설레이는 마음으로 섬깁니다



베델교회에 남편과 함께 새 교인으로 등록한 지도 23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참~ 잘 오셨습시다!"로 시작된 따뜻하고 구수한 그 한마디가 저희 부부를 새가족 교육, 새 교인 만찬, 그리고 셀 목장 배정으로 이어져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 주셨고 삶의 여러 시기를 지나며 함께 웃고 울고 기도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이제는 같은 셀에 속해 있지 않아도 여전히 서로 연락하며 지냅니다. 지금은 현재 셀을 통하여 부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희 부부를 겸손하게 합니다.

약 2년 전까지는 일과 아이 양육, 그리고 가족들 돌봄을 병행하며 그냥 바쁘게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저에게 교회 봉사는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고려해 보는 저의 선택 사항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교회를 섬기는 일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몸소 보여 주심으로써 저에게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로 권사직 부역 봉사를 했으며, 올해는 새가족

팀에 속해 있는 바나바 사역을 남편과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같이 섬길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매주 어떤 새가족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지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섭니다. 저희를 반갑게 맞아 주시는 팀장님과 팀원들을 보면 즐겁고, 그분들의 열정과 섬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교적 번호까지 받으시는 새 교인들을 보면 뿌듯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희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새가족들을 섬깁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준 베델의 "참~ 잘 오셨습시다!"가 다른 분들에게도 똑같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Elaine Choi 권사

성례 간증
유아세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하나 뿐인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실 수 있었을 까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본 'Most - The

Bridge'라는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한 아버지가 다리를 단아야 기차 안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지만, 그 톱니바퀴 사이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눈물로 다리를 단았고 아들은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며 저희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노엘이도 평생 경험하며 마음에 쌓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노엘이를 재울 때마다 '요게벳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노엘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인성과 지혜를 빚어가시며 삶의 목적을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주시길 것을 믿습니다. 유아세례를 통해 노엘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의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며 노엘이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송진규/김다연



우리 가정의 축복인 고윤이의 유아세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에서 오신 할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첫째에 이어 둘째가 태어나 하루하루 정신없이 보내기 바쁜 나날이었는데, 이번 유아세례를 통해 우리 가정에 고운이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나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음을 알기에, 앞으로 우리 가정 이 나아갈 길도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기며 감사함으로 걸어가기를 다짐합니다.

아이들이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부모인 저희는 그저 묵묵히 뒤에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최선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아이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함께 축복하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고윤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도록 늘 기도하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기민/박은죽

부설 사역: BCA
여름캠프

작은 도전

또다시 아이의 여름방학이 돌아왔습니다. 평생에 열두 번 남짓밖에 없는 기간임에도 늘 어김없이 두려움이 먼저 엄습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방학을 맞이하기 전에 부랴부랴 캠프를 알아봅니다. 아이는 방학이라고 집에 있고 싶어 하지만, 일하는 엄마인 저는 미안함 반, 의무감 반으로 열심히 썸머캠프를 찾아봅니다. 캠프 내용, 시간, 가격, 거리 등의 조건들을 따져 보며 아이가 질리지 않도록 다양한 종류의 캠프를 등록했습니다.

등록을 마치고 나니 2주의 시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어디를 또 보내야 하나 고민하며 마땅한 곳이 보이지 않던 차에 교회에서 베델클래시컬 아카데미 썸머캠프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캠프의 조건들을 따져 보니 우리에게서 그야말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아이를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는데 '아카데미'라는 이름에서 뭔가

눈치를 챘는지, 공부를 많이 시키는 곳은 싫다고 제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결국 아이가 갖고 싶어 했던 장난감을 미끼로 던지고 게임 시간을 늘려 주는 것으로 적당히 협상을 한 뒤에야 캠프 등록 승낙을 받아냈습니다.

과연 저 아이가 베델클래시컬 아카데미 썸머캠프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싶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캠프 첫날, 다행히 교회 친구들도 보이고 선생님들도 친절해서 아이는 큰 저항 없이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맛있는 점심까지 제공되니 도시락을 싸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엄마로서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캠프를 마칠 때쯤 교회에 도착해 보니 아이는 편안한 표정으로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주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별 탈 없이 캠프를 마치고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들, 이번에 클래식 아카데미 캠프 어땠어?'

'음.. 조금 어려웠는데 챌린지가 되어서 좋았어.'

내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아이의 대답을 들으며 제가 괜한 걱정을 했다는 생각과, 그동안 아이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은 아닐까 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에게는 도전의 기쁨과 성취감을, 부모에게는 아이를 새롭게 발견하는 기쁨을 선물해 준 베델클래시컬 아카데미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여름, 아이와 함께 저 또한 뽀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한정훈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QTin: 조동현 목사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화평/온유/섬김: 박성권 목사
 사랑/셀/울림: 조태현 목사
 찬송/Joy/훈련: 서동민 목사
 은혜/새가족/BCA: 배홍수 목사
 믿음/예배: 이형석 목사
 BGC 담임: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예배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예배채플: 공병주 목사
 예배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영어중등부: 신재민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성우 목사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유년부: 이송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치부/아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유아부: 이경은 전도사
 영아부: 최미정 전도사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환우: 정티나 목사
 Beyond the Blue: 오경희 전도사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코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예배 위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조주은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이미옥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콘텐츠 디렉터: 최중형
 음향: 강창위, 한 진
 디자인: 박선경
 웹/IT: 김정아
 수광관: 오훈란

IICOF 예배

사역광고

베델 MIT 대학

오는 9월 4일(금) 저녁, 온 세대가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IICOF(One In Christ On Friday)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며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며,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밤이 될 것입니다. 예배에 앞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일사: 9월 4일(금) 오후 5시 30분-9시

▶ 프리 페스티벌: 오후 5시 30분-7시, 코트야드

- 푸드 트럭 저녁 식사(교회에서 제공하지 않으니 각자 구입 부탁드립니다.)
-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 & 게임
- 가족 레이저 태그
- 패밀리 포토 부스 운영
- 추첨을 통해 브로드웨이 뮤지컬 티켓 증정
- 그 외 다양한 즐길 거리 마련

▶ 예배: 오후 7시 30분-9시, 본당

▶ 문의: 변 진 집사 (201)286-9396

배움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 62세 이상 성도님들을 위한 MIT 대학 봄학기가 개강합니다. 신앙, 건강, 교양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10개의 유익한 강좌를 통해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보세요. 같은 세대의 성도님들과 함께 배우고 나누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12주로 구성된 강의는 최고의 강사진께서 쉽고 재미있게 진행되도록 구성되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 클래스 MIT 주방팀에서 엄선된 재료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점심이 제공됩니다. 일부 과목은 인원 제한이 있는 관계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 강좌: 시편을 통해 배우는 인생의 4계절/노래교실/한글서예/한국화/서양화/손뜨개/민화/힐링피트니스/손 피아노/시니어인지 뇌크리에이션/스트레칭

▶ 프로그램 일정:

-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예배
- 오전 11시 30분-12시: 스트레칭
- 오후 12시 00분-12시 40분: 점심
- 오후 12시 40분-2시: 과목별 수업

▶ 접수: 8월 30일(주일)까지 본당 앞 부스

▶ 기간: 9월 4일(금)-11월 20일(금), 12주간

▶ 문의: 김재훈 장로 (714)390-4967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9월) |

9/6: ①부-박세환	②부-심진규	③부-양승화	④부-김진형
9/13: ①부-오상현	②부-안성희	③부-이길수	④부-나승채
9/20: ①부-안지호	②부-여홍평	③부-윤주원	④부-신영록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9월) |

9/5: 이세웅	9/12: 이연택	9/19: 이장한	9/26: 이용준
----------	-----------	-----------	-----------

강단꽃(8,9월) |

8/30: 이수민	9/6: 성홍숙, 오영옥, 최혁성	9/13: 전정례	9/20: 김미숙, 김순옥
-----------	--------------------	-----------	----------------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장원호(족부과), 간호사-황선영

다음주 | 의사-김재호(한외과), 간호사-이정하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익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서반석(이루다), 오감사(오사랑),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이석배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경(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터)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창익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문화선교 | 공 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장)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 **김한요 목사님과 함께 떠나는 마지막 수요일섬세여행 '인생바다에서 만난 구명선'** 이번 주는 제4장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진행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깊이 만나는 말씀의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장소: 9월 2일(수) 저녁 7시, 본당

자녀돌봄/문의: 유아·유치 및 K-5학년 대상, 조광종 집사 (949)706-4168

◆ **OICOF 특별예배 및 엘리사 새벽기도회** 온세대 예배는 'OICOS'에 그치지 않습니다. 새 학기를 맞이한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을 더욱 열정적으로 바라보는 예배, '오이코프(OICOF)'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중에는 소망 목장(담당 이충경 목사) 중심으로 엘리사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엘리사 새벽기도회 일시/장소: 9월 1일(화)~4일(금) 오전 5시 30분, 본당

엘리사 새벽기도회 대상: 소망목장 (이충경 목사 담당)

OICOF 예배 일시/장소: 9월 4일(금) 저녁 7시 30분, 본당

(*오후 5시 30분부터 코트야드에 맛있는 Food Truck이 찾아옵니다. 구매 후 이용 가능)

◆ **Beyond the Blue 가정회복 영상 세미나** 사별(가족 포함), 이혼(별거 포함)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새 삶의 변화를 돕는 영상 세미나입니다.

일시/장소: 9월 4일(금)~12월 4일(금) 13주간 저녁 7시, 조이채플(6시부터 식사)

등록: 코트야드 부스 또는 홈페이지

문의: 전정례 권사 (714)240-3718, 오경희 전도사 (262)224-7797

◆ **베델 MIT 가을학기 모집** 베델 MIT 가을학기 모집을 본당 앞 부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62세 이상 시니어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7면 참고)

접수: 8월 30일(주일) 오늘 마감합니다.

기간/문의: 9월 4일(금)~11월 20일(금) 12주간, 김재훈 장로 (714)390-4967

◆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BCA) 비전현금** 말씀 위에 뿌리내리는 배움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는 BCA를 위해 9월 6일(주일)에 비전현금을 드립니다. "고전 기독교 교육"을 통해 말씀이 먼저 되는 환경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사랑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베델교회의 비전에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949)854-4013, admin@bethelclassical.org

◆ **셀 개강 안내** 다음 주 주일(9월 6일)부터 2026년 하반기 셀이 개강합니다. 말씀과 삶을 나누는 가운데 공동체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상반기 셀모임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셀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본당 앞 셀사역 부스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 김학남 집사 (408)806-4133, 조태현 목사 (949)431-8440

Bethel Announcements

◆ **교회학교 교사 연합기도회** 오늘 3부 예배 후, 교사 연합기도회가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모든 리더분들께 점심 식사가 제공되며, 올해 교육부의 새로운 주제를 함께 나누고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모든 선생님들과 TA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장소/문의: 오후 1시~2시 20분, 체육관, 천승현 집사 (512)947-7291

◆ **BYM QARA 'I believe' 금요 프로그램 신청** 영어중등부 금요 프로그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맛있는 저녁식사와 함께 찬양과 예배, 소그룹 교제, 그리고 다양한 게임 및 활동을 통해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간/등록비: 9월 25일(금)~12월 11일(금), \$60

시간/장소: 매주 금요일 오후 7시~9시(저녁 식사: 오후 6시~7시), 비전채플

문의: 신재민 전도사 (949)405-1712



◆ **B2N 2027 연합기도회 2차 등록** 초대 초대교회의 시작점이자 사도 바울의 발자취가 깃든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Blessings to Nations(B2N) 2027' 연합기도회의 2차 등록을 받습니다. 1차 등록하신 분들은 여권사본과 B2N 등록비를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장소: 2027년 4월 22일(목)~26일(월), 튀르키예 안탈리아와 아스펜도스 원형극장

등록: 코트야드 부스 또는 QR 코드

문의: 황세현 장로 (949)648-1907, 이충경 목사 (949)537-6968



◆ **큐티인 9월호 판매** QTin 9월호가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9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 김광영 장로 (949)233-0677

◆ **축하해 주세요**

오늘 3부 예배에 오현민/임지연 성도의 딸 오하엘(Ellie)의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양대식 성도님(오경숙 권사의 부친, 오충근 집사의 장인)께서 8월 20일(목)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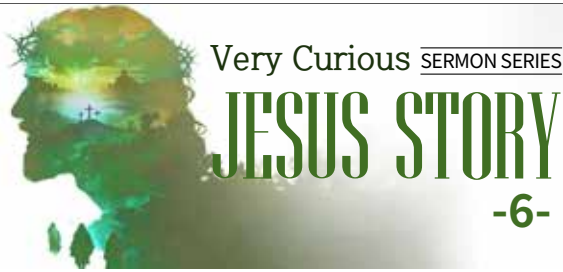
- 故 이바나바 은퇴선교사님(옥소리 은퇴선교사의 남편)께서 8월 22일(토)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이순자 성도님(박선희 권사의 모친, 김효선 집사의 장모)께서 8월 26일(수)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 AWANA(어와나):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수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일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 ■ 예살금요일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김경자 권사 ■ 기 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 사진 기자: 박성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 역: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Liberation Journal of the Samaritan Woman of Sychar (John 4:1–30)

1. Why did the Samaritan woman come out to the well alone in the middle of the day when people rarely visited? What was the condition of her life and heart?
2. Jesus intentionally traveled through Samaria to reach out first to a woman whom others had completely ignored. What obstacles did he overcome to find her?
3. What did the Samaritan woman think Jesus's value was? What challenge does the Jonathan Edwards' quote present: "He who has false faith loves God because of what God has done or might do for him. But a true believer loves God because of the holiness, beauty, and excellence in God's own nature."?
4. When Jesus suddenly told her, "Go, call your husband," was He trying to condemn her? What loving intent was hidden behind that question? Is there a sensitive "husband" story in your life that you would prefer to keep hidden?
5. What do you feel you must have these days to be satisfied, and what do you feel would collapse your life if you lost it? What is your own "well" that you keep drawing water from without even realizing it?
6. Just as the Samaritan woman left her water jar behind and ran to the people, what kind of change appears in a person who has tasted the living water of Jesus?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